

재난 CG의 '진일보'...예측 가능한 블록버스터의 한계

남과 북 집어삼킬 백두산 마지막 폭발막아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
초호화 캐스팅에 백두산 폭발신 인상적...전형적 스토리는 아쉬움

영화 '백두산' 리뷰

특전사 EOD 대위 조인창(하정우 분)은 전역을 앞두고 아내 최지영(배수지 분)의 출산을 기다리며 아빠가 될 행복한 꿈에 젖어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발생하고, 거대한 재난에 한반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다. 재난은 끝이 아니었다.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백두산의 거대한 추가 폭발이 예측되고, 백두산 폭발을 연구해온 지질학 교수 강봉래(마동석 분)는 청와대 민정수석 전유경(전혜진 분)의 요청으로 자신이 연구해온 이론에 따른 작전을 계획한다. 그 작전에 조인창이 투입된다. 조인창은 백두산 마그마방의 마그마가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어 압력을 낮춰야 하는 작전을 성공시

켜야 한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 북한 무력부 소속 일급 지원 리준평(이병헌 분)과 접선,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언론사 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 '백두산' (감독 이혜준 김병서)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을 비롯해 전혜진 배수지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올 겨울 가장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 하나다. '백두산'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진일보한 CG다. '백두산'의 생생하고 체험적 비주얼이 돋보이는 CG는 영화 '신과 함께' 시리

즈로 기술력을 인정 받은 맥스터 스튜디오가 맡았다. 영화 초반 백두산이 1차 폭발하고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 강남역이 붕괴되는 장면은 완성도 높은 리얼한 CG로 구현돼 거대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5분 남짓한 강남역 시퀀스를 위해 제작진이 강남역 로케이션 촬영과 세트 촬영을 10회 걸쳐 진행한 끝에 현장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다. 백두산 2차 폭발신으로, 한강 해일이 서울 한복판을 덮는 장면과 백두산 3차 폭발신인 북한 현수교 붕괴신 등도 인상적인 장면들이다. 재난 블록버스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인 볼거리는 인상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전형적 스토리를 벗어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캐릭터도 마찬가지다. 조인창부터 최지영까지, 재난 블록버스터 속 기능적인 캐릭터들이

다수 나온다. 이들의 기능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드러나 앞으로 보여줄 행동을 예상하는 게 가능하다. 영화의 재미를 키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병헌과 하정우도 처음 만났지만 특별히 새로운 호흡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이들 캐릭터가 보여주는 몇몇 유머 신들이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하게 이어지는 재난 상황들 속에서 숨 쉴 곳을 만들어준다. '백두산'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재난 상황 속, 이를 컨트롤하는 갈등 속의 정부와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의 간섭, 그리고 리준평의 알 수 없는 이중작전을 함께 묘사하며 많은 이야기를 전한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야기가 본격 궤도에 오르는 점은 영화 초반의 극적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초반에 많은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반복적 재난 상황과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를 보여주고, 끝내 실패로 달려가는 전형적인 전개 방식이 기존 클리셰에 익숙해진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배수지의 녹아들지 못한 연기도 다소 아쉽다. 배수지는 이번 작품에서 출산을 앞둔 엄마이자 한 아내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는 인물의 고군분투를 연기했다. 극적인 감정 연기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신도 보여줬다. 하지만 튀는 연기는 몰입을 방해했고, 남편 역할인 하정우와 케미스트리

도 어색했다. 반면 마동석 전혜진의 호흡은 인상적이었다. 마동석은 그간 액션 장르에서 보여왔던 연기가 아닌, 지질학 교수로서 인텔리한 매력을 보여주는 스펙트럼을 자랑했다. 전혜진 역시도 냉철한 카리스마와 능동적인 캐릭터로 '백두산'에서 임팩트 있는 여성 캐릭터를 남겼다. 19일 개봉.

'이태원 클라쓰' 박서준, 2차 티저 포스터 공개

패기 가득 청춘

'이태원 클라쓰' 박서준이 청춘 에너지를 폭발시킨 2차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다. JTBC 새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극본 조광진/ 연출 김성윤) 측은 19일 패기 가득한 청춘으로 변신한 박서준의 2차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동명의 다음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태원 클라쓰'는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재기로 뚫힌 청춘들의 '합' 한 반란을 그린 작품이다. 세계를 압축해 놓은 듯한 이태원의 작은 거리에서 각자의 가치관으로 자유를 쫓는 이들의 창업 신화를 다이나믹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공개된 2차 티저 포스터 속에는 극 중 박서준이로 분한 박서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단밤' 포차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온몸 곳곳에 붙인 피스의 흔적에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그의 눈빛이 보는 이들의 설렘을 이끌어낸다. 박서준이 연기하는 박서준이는 불의에 타협할 줄 모르는 직진 청년이다. 사그라지지 않는 분노를 안고 임성한 이태원 거리에서 새로운 꿈의 도전을 시작한 그가 요식업계의 대기업 '장가'를 향한 거침없는 반격으로 통쾌한 사이드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태원 클라쓰' 제작진은 "박서준은 이미 캐릭터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으로 자신만의 '박서준'을 그려가고 있다"라며 "소신과 패기로 뚫힌 뜨거운 청춘 에너지를 발산할 그의 연기 변신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태원 클라쓰'는 '초콜릿' 후속으로 2020년 1월31일 오후 10시50분 처음 방송된다.

'암투병' 김영호 복귀작 '청춘빌라 살인사건', 내년 1월 2일 개봉

암 투병을 해온 배우 김영호의 복귀작 '청춘빌라 살인사건' (감독 신해강)이 내년 1월 2일 개봉을 확정했다. 19일 (주)미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청춘빌라 살인사건'은 내년 1월 2일 개봉을 확정짓고 주연 배우 김영호의 얼굴이 들어간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청춘빌라 살인사건'은 무심코 받은 30억이라는 돈으로 인해 유혈 난자한 핏빛 소동극에 휘말리게 된 동네 목욕탕 남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린 코믹 스릴러 영화다. 김영호는 최근 희귀암인 육종암으로 투병해왔다. '청춘빌라 살인사건'은 그의 스크린 복귀작이다. 이번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메마르다 못해 갈라져버린 척박한 땅 바닥에 널브러진 전직 강대 수로

(김영호 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어 '넌 돈이 얼마나 많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카피는 과거 뒷골목 생활을 청산하고 목욕탕을 운영하던 수로가 배고픈 과거를 함께 견뎌 온 형님 민석(김정팔 분)으로부터 30억이라는 거액이 걸린 꼬드김에 넘어가 벌여지는 이수라장을 예고한다. 영화는 '초대'부터 '세벽이 온다'까지 총 7장으로 나눠 전개돼 처음에는 가볍게만 보였던 상황이 30억이라는 돈을 두고 각자의 욕망으로 인해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흥미롭게 조명한다. 한편 '청춘빌라 살인사건'은 지난 22회 부천국제영화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경쟁' 부문에 초청되면서 주목받았다. 특히 김영호는 이 부문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김영호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코믹 연기와 다수의 작품에서 눈부신 조연으로 활약해 온 배우 김정팔, 윤봉길 등의 연기 앙상블을 이루어, 돈으로 얽히고 설킨 긴장감 있는 블랙 코미디를 보여줄 예정이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백두산, 감쪽같은 그녀
2관	백두산
3관	시동
4관	백두산
5관	포드 V 페라리, 쥘만지:넥스트 레벨
6관	겨울왕국
7관	시동, 감쪽같은 그녀
8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포드 V 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미안해요 리키
9관	백두산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겨울왕국2,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아스테릭스
2관	겨울왕국2,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쥘만지
3관	시동
4관	백두산
5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포드 V 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6관	백두산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